

20231231 3부예배 (설교: 신봉준 목사) 미래와 후대를 보고 체험하는 성도(준비하는 사람) (신명기 34:1-12)

- 1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 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 2 또 온 남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 3 네겔과 종려나무의 성을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 4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네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 5 이에 여호와와 종 모세가 여호와와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 6 벳브을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 7 모세가 죽을 때 나이 백이십 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 8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삼십 일을 애곡하니라
- 9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 10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 11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모든 이적과 기사와
- 12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시매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서론>

▶ 오늘 '미래와 후대를 보고 체험하는 성도', 또 다른 말로 '준비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명기 34장은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모세의 마지막 부분이고요, 비스가산에서 모세가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죽을 직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 누군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오늘과 그날이 있다.' 라고 했어요. 오늘과 그날이 있다, 오늘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날이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끝났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오늘이라도 불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을 허락하셨다는 것은 오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존재케 하시고, 그 오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구원의 은혜를 알고, 참된 행복한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오늘의 삶을 여러분이 최고의 날로 만들어야 합니다.

▶ 그러면 그날이 있습니다. 그날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이 10년 뒤가 될지, 20년 뒤가 될지, 아니 장차 앞으로 요즘은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오랜 후에 부르실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반드시 우리에게 그날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느 누구도 미래를 보장할 수 없는 것인데요, 그날이 오늘 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그날을 알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겸손함으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그날은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서는 그날이 될 것이고, 그날을 준비하는 것이 바로 오늘의 삶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졸업생들도 마찬가지고, 또 오늘 은퇴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오늘 장로님이 은퇴가 아니고, 졸업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대한 축복된 역사를 놓고 새로운 시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여러분에게 그날을 위해서 오늘을 성공시키는 최고의 날들로 인도하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 오늘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모세를 비스가산에서 부르셔서 가나안이 보이는 산으로 데려가서 네 후대가 들어갈 땅이다 라고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비록 본인은 못 들어가지만 후대가 약속의 이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헌신한 모세를 위로하고, 칭찬하는 모습이 1-6절에 나와요. 자신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지만은 후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헌신하고, 또 수고한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 오늘 어떤 면에서 정말 우리 은퇴하시는 모든 분들, 또 우리 하나님교회 성도들이 정말로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냐? 후대들이 가나안 땅을 볼 수 있도록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하는 그런 기도가 있었던 분들이고, 그런 기도를 지금도 계속하고 있는 분들이 우리 어른 성도들이고, 또 은퇴자들입니다.

▶ 그런데 7절에 보면 하나님의 그 헌신에 대한 위로와 칭찬과 더불어 모세가 나이 120세가 될 때까지 눈도 흐리지 않고, 기력도 쇠하지 아니하였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죽을 때까지

사명 다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 오늘 은퇴하시는 여러분들, 비록 교회 법정상 70세에 은퇴로, 장립집사 은퇴하고, 권사 은퇴하지만은 그러나 정말로 여러분의 사명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후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여러분이 정말로 기도의 무릎을 꿇고, 그에 대한 배경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정말 부르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고, 사명 다하고 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 그리고 8절에 보면 전 백성이 이 모세의 죽음을 놓고, 30일 동안에 울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무슨 말입니까? 백성들도 그 모세의 수고를 알았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오늘부터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런 축복된 역사 속에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 특별히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더더욱이 이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의 생을 인도하실 부분을 놓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답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붙잡는 그런 축복의 시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론>

1. 복음을 알고, 복음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

▶ 먼저 첫 번째입니다. 모세는 복음을 알고 있었고, 복음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이었습니다. 흔히 모세를 일컬어서 율법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을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주었죠. 그러나 모세가 율법의 사람인 것이 아니라 사실은 복음을 알고, 복음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이었어.

▶ 율법은 결국은 무엇을 말합니까? 갈라디아서3:24절에 있는 말씀처럼 절대로 율법으로는 구원 얻을 수 없고,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 복음을 붙잡으라는 것이 율법이거든요. 그래서 갈라디아서3:24절에 말씀하고 있죠.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 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느니라.", 했어요.

▶ 율법으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빨리 율법에서 말하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복음 속으로 들어가라, 그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예요. 그래서 자칫 모세를 이끌어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율법 대표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아닙니다. 모세 또한 복음을 알고, 복음의 능력을 가장 정확하게 체험한 사람 중의 한 사람이었다 라는 것.

▶ 이미 여러분 잘 알고 있습니다. 모세 오경이 모세에 의해서 기록 되었어요. 그런데 그 모세 오경의 가장 중요한 복음의 핵심이 창세기3: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게 모세가 기록한 거예요. 출애굽기3:18절에 희생 제사를 드리려 하노니, 그게 모세가 기록한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율법의 사람이 아니라 복음을 알고,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누렸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실제로 모세는 어느 정도로 힘든 삶을 살았습니까?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았는데 어느 정도였느냐? 한때는 애굽의 왕자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시대적으로 정치적으로 이 모세는 엄청난 상처를 가지고 산 사람입니다. 뭔가를 해보겠다고 나왔습니다마는 그 안에 열기와 분노 때문에 결국은 살인자가 되어버린 것이죠.

▶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새벽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마는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강가에 버려졌다? 그러면 버려진 그 강가에서 죽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건짐 받았어요. 그리고 애굽에 공주의 집에 들어가서 결국 그 당시 최고의 학문인 애굽에 공부를 하게 되었어요.

▶ 그렇다면은 모세는 사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내가 왜 유대인으로서 강가에 버려졌고, 그리고 왜 강가에서 죽지 않고 건짐을 받아가지고 애굽에 공주의 집에 들어가서 애굽에 교육을 받았을까? 자기의 정체성이 나올 것인데 사실은 모세가 이 정체성을 깨닫기 위해서 혼란 가운데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출애굽기3:11절에 보면 "하나님 내가 누구 간데" 라고 나와요.

▶ 그때 하나님이 답을 주시는데 3:12절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말씀했어요.. 사실은 많은 상처들 가운데, 많은 혼란 가운데 내가 누구인가 정체성을 알지 못해서 방황하는 가운데 있었던 모세였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분노와 열기를 숨길 수 없어서 결국 사람을 죽이게 되었는데, 그래서 살인자라는 누명을 쓰고, 결국 저 미디안 광야에 가서 40년 동안에 양을 치는 그러한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던 모세였습니다.

▶ 그런데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어느 날 호렙산에서 찾아오신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듯이 출애굽기 3장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불이 붙었습니다마는 꺼지지 않는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거기에 모세를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말씀했습니다.

▶ 첫 번째로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러분 여기에서 신을 벗으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 인생에 죄악과 더러움을 가지고 살았던 그 모든 죄악의 발들을 벗어버리라 이 말입니다. 그게 모세를 부르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었어요. 그다음에 너희를 고통으로 몰고 가는 원수들에게서 너희가 해방시킬 것이다 했습니다. 원수에서 해방될 것을 말씀하시고요. 세 번째로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찾아오셔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축복 세 가지는 복음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죄악의 발들을, 죄악에 속해 있던 우리의 모든 삶들을 벗어버리는 참 제사장인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고요. 원수들에게서 너희를 해방시킬 것이다, 사탄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낼 것을 말하고 있는 참 왕이신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내가 이를 위해서 함께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참 선지자이신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 그래서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사실은 그 세 가지 축복은 뭐냐? 그리스도에 대한 축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죄와 원수로 죽었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모세를 찾아와서 축복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축복하세요.

▶ 혹시나 어렵고 문제 가운데 있는 분들 있습니까? 뭔가 모르게 갈등 가운데 있는 분들 있습니까? 그것은 모세가 가장 어렵고 힘들 때 복음의 역사를 체험하고 누렸던 것처럼 우리의 문제와 사건과 어려움들은 복음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는 사실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 혹시나 여러분 문제와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까? 뭔가 모를 나의 한계 속에 나의 무능함을 느끼니까? 그게 복음을 체험하라고 주신 하나님이 주신 문제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아는 척하지 말고 자신을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세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문제와 실패를 보지 말고, 거기에 묶여서 그 문제 속에 허덕이고 있는 초라한 나의 모습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불평, 원망을 멈추고, 세상의 작은 이익과 갈등에 잡혀 있지 말고,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발견하는 그런 축복된 응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 우리가 조금만 말씀 붙잡고, 말씀 속에 들어가 보면은요, 그때부터 그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역사하시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를 부탁드립니다. 이미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냈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를 가지고, 조금만 말씀 속에서 찾고, 기도 속에서 찾아나가면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아, 이 문제가 문제 아니구나!' 라는 사실이 보여지고, 오히려 그게 내 발판이 되어서 세계 살리는 엄청난 축복된 도구가 되어질 것입니다. 이 축복을 찾아努려야 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복음을 체험했다는 것이고, 이렇게 될 때에 오직 예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 어떤 면에서 모세는 마지막에 하나님 부르심 받기까지 이 복음을 알고,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이 복음의 능력을 증거하는 그 축복된 사람으로 쓰임 받았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오늘 은퇴로 물러나시는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정말로 처음 붙잡았던 그 복음의 역사가 계속해서 여러분 두려워하시고, 그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함을 깨닫고,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오직 복음의 증인 되시고, 모델 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 미래를 알고, 후대를 보고 준비한 사람

▶ 두 번째입니다. 모세는 미래와 후대를 보고 준비한 사람입니다. 미래를 미리 보았어요, 미래를 준비한 사람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모든 것을 다 완성하신 것이 아니라 사실은 모세는 알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준비한 미래를 위해서 나는 한 부분 쓰임 받을 뿐이다 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겸손함으로 나가게 된 것이죠.

▶ 사람들을 보면 내가 다 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또 내가 다 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건 교만한 사람입니다. 내가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다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나를 쓰시기 위해서 불렀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게 주어진 그 부분을 놓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인도받는 것, 하나님이 쓰시기 합당한 그릇들로 준비되는 것, 그게 다입니다 사실은. 내가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

예요.

▶ 모세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내가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한 부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쓰임 받을 뿐이다 라는 사실을 모세는 알았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될 때에 정말로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은 그 작은 일에 하나님이 축복하시게 된 사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 우리는 혼자 다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면 분명히 그 부르심 앞에 우리를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부르셨는가? 그 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귀중한 계획이, 나에게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 사실을 알고, 내게 주어진 것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 받아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모든 것에 대한 축복도 나는 작은 일에 헌신하는데 모든 축복된 역사를 내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루신다 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 그래서 모세는 정작 자신은 들어가지 못했지만 상관이 없었어요. 사실 애굽에서 출애굽 시키고, 광야 길을 인도하는 사람이 지도자가 모세입니다. 그런데 비스가산에서 너는 이제 이것까지다, 네 후대들이 네가 보고 있는 가나안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런데 거기에 모세는 '하나님 왜 내가 여기까지입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 왜냐? 하나님이 어느 부분까지 쓰실 것을 모세는 알았기 때문에 그것까지 쓰임 받는 그 자체가 감사함으로 모세는 하나님 앞에 섰던 사실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 그 대신에 모세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미래에 쓰여질 후대를 생각한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의 기도 속에,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속에, 우리 은퇴하시는 여러분들의 기도 속에 지금까지도 후대들을 기도해 오셨습니까마는 여러분 기도 속에 후대를 생각하고, 후대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느 정도로? 그 후대들을 세우고 훈련시키고 축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사람이 모세예요.

▶ 후대를 세워서 훈련시키고, 축복했는데 그렇게 세워진 사람이 누구니까? 여호수아입니다. 모세로 말미암아 세워진 여호수아였습니다. 모세가 어느 정도 여호수아를 훈련 시켰느냐? 모세는 회막에서 일을 하다가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나 여전히 여호수아는 그 회막을 지키고 있어요. 그런 영적인 훈련을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는 훈련받은 사실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 그리고 가나안 땅에 정탐꾼들을 보낼 때에 결국은 믿고 보낸 사람이 여호수아였어요. 그러니까 그가 돌아와서 다 불신앙의 고백들을 하는데 여호수아는 와서 믿음의 보고를 하게 된 사실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기 속에 있는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모든 정탐꾼들이 불신앙의 보고를 할 때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고백을 한 사실들을 보게 됩니다.

▶ 이것이 바로 제자입니다. 모든 환경에서 불신앙의 보고를 한다 할지라도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라는 사실에 대한 믿음의 보고를 하는 것이 바로 제자인데, 그 제자가 모세로 말미암아 준비된 여호수아였다 라는 사실.

▶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하는데 여호와와 신이 여호수아에게 충만하게 임했다 했어요. 정말로 미래를 생각하고, 후대를 생각한 모세였습니다. 우리 하나님교회 성도들 오늘이 다가옵니다, 우리에게 미래가 있어요. 그 미래를 놓고, 오늘을 준비하는 것인데 오늘 여러분의 기도 속에 후대가 있어야 돼요.

▶ 오늘 여러분의 기도 속에 후대들을 향한 기도가 있어야 돼요. 거기에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중요한 제자들이 세워져서 나중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축복된 응답이 있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의 미래를 생각하고, 후대를 담은 기도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 그리고 우리 램েন্ট들은 부탁드립니다, 졸업이 다가 아니에요. 정말로 주의 종들의 기도 속에 있는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뭔가 지금 할 때가 아니에요 사실은. 졸업한다고 해서 뭔가 내가 당장 뭘 한다? 아니에요,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그렇다면은 최고의 준비는 뭐냐?

▶ 물론 여러분 공부를 잘해도 좋고요, 못해도 괜찮아요. 고등학교 생활 갈등하는 부분들이 나는 신앙생활이 제대로 안 되고, 기도가 안 되어져요. 그게 정상이에요 사실은. 공부도 안 되어집니다, 정상이에요. 이상한 게 아닙니다, 정상이에요.

▶ 그러나 그게 대학을 가면서, 대학을 졸업하면서 하나하나 지금까지 여러번 훈련받은 부분들이 정리가 되어지면서 그게 여러번 시스템이 되어가지고, 나중에 그 속에서 응답받는 귀한 축복이 나오게 돼요. 그러나 지금은 갈등해도 상관없어요, 흔들려도 괜찮아요. 그런 시간표라니까요? 완성된 시간이 아니에요.

▶ 그러면은 지금 여러분이 뭐냐? 물론 공부를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공부를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하고, 무엇보다도 정말로 주의 종들의 기도 속에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모세 옆에 여호수아처럼 교회를 살리는 주역이 되고, 목회자의 왼팔과 오른팔들이 되는 그런 기도 속에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 여러분 후대들이 주의 종들의, 우리 교사들의 기도 속에 있어야 돼요. 실제로 후대들이 현장을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부분들이 바로 렘넌트들입니다. 악한 사탄으로 말미암아 온 문화들이 완전히 흑암 문화 속에 우리 후대들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어요.

▶ 그렇다면 정말로 주의 종들과 교사들은 우리 후대들을 놓고 기도해야 되고, 어릴 때부터 지금 계속해서 말씀 나오나다마는 금, 토, 일 시대를 통해가지고, 제대로 기도에 대한 훈련들을 받고, 달란트를 가지고, 전문성을 찾아내고, 현장성을 가지고, 시스템이 되어진, 그래서 300% 비밀들을 가진 렘넌트로 세워질 수 있도록, 현장성과 전문성과 시스템이 준비된 렘넌트로 준비될 수 있도록 그 일들을 오늘 준비해야 돼요.

▶ 오늘이라는 시간표 속에 여러분이 준비해야 됩니다. 정말로 기도 속에서 공부하시면서 여러분 기도 속에 정말로 목회자들의 기도 속에, 주의 종들의 기도 속에 여러분이 있어야 되고, 그게 가장 귀중한 축복이에요. 몰라서 그렇죠, 가장 귀중한 축복이에요. 사실은 여호수아는 모세의 기도 속에 있었던 사람이고, 여호수아는 모세의 오른팔이 되었고, 왼팔이 되었던 사람이예요.

▶ 그래서 오른팔이 되라? 왼팔이 되라? 그 이전에 중요한 부탁을 합니다. 정말로 주의 종들의 기도 속에서 여러분이 생각나고, 주의 종들의 기도 속에 떠나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할아버지가 저한테 찾아와서 '목사님, 우리 손녀 누구누구가 정말 목사님의 기도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야기를 해요. 정말로 그 자녀들도 사랑하고, 손주들도 너무 사랑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저한테 와서 '우리 손녀 누구누구가 정말로 목사님의 기도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게 가장 귀중한 축복이에요.

▶ 몰라서 그렇죠 사실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가 있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어르신들이 있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은퇴하시는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여러분은 기도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시되 무엇보다도 영적인 준비들을 하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주의 종들, 교사들의 기도 속에 있으면서 복음으로 소통될 수 있는 렘넌트들이 되면 여러분의 미래는 하나님이 책임지시게 되어 있습니다.

결론>

▶ 말씀을 맺겠습니다. 복음을 알고, 복음의 능력을 체험한 모세,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그의 사명 감당하다가 갔습니다. 오늘 우리 집사님들과 우리 권사님들, 은퇴는 하시지만은 여러분이 복음을 알고 있어요. 그 복음의 능력을 아는 기도 속에서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사명 다하다 가시기를 바랍니다.

▶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은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지도자로 준비되었던 것처럼 주의 종들의 기도 속에 있으면서 영적인 준비들이 되어짐으로 한 시대를 살리는 일에 쓰임 받는 렘넌트들로 준비 되어지는 귀한 축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을 최고의 복음을 알고, 누리는 귀한 날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 복음의 역사 속에 그날을 준비할 수 있는 가장 축복된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가 미래를 알고, 후대를 보고, 준비하는 한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교회 자료팀

국장 : 강영호 장로 / 팀장 : 조재호 집사(choddq@hanmail.net)
유튜브 채널(대구하나교회) : <https://www.youtube.com/ihanachurch>
다음 카페 : <http://cafe.daum.net/hanarutc>
교회 홈페이지 : <http://www.ihanachurch.com/>
* 주소 : 대구광역시 달서구 월배로 235 (우. 42748)